

# 한국 근현대사와 영남지역의 대항역사로서 <한티재 하늘>

배지연(경북대)

## <한티재 하늘> 다시 읽기

### 작가 권정생과 <한티재 하늘>

- 권정생(1937~2007): 안동 등 경북 북부지역에 거주하며 40여 년간 문학활동,

한국 아동문학의 대표 작가

- <한티재 하늘>(1998)

- 10권 분량의 대하역사소설로 계획하고 집필하기 시작했으나, 1~2권만 출간.

- 1권과 2권 각각 12장, 총 24장으로 구성

- 1895~1937년 사이 동학농민혁명, 을미사변, 을사조약, 한일병합과 3.1운동 등

한국근대사의 주요사건 다룬

- 제목 '한티재': 경상도의 중심도시 대구에서 안동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고개



우리 민중소설들도 보면 거기 같이 참여했던 백성들은 다 사라져 없고, 고통받다 죽구 그중에서 앞에 섰던 위대한 사람들만 남아버리잖아요. 나는 조선시대 때 뭐 이런 거는 모르고 동학전쟁 이야기는 여기서 많이 해요, 어른들이. / 저기 살구나무제 넘어가면 지리산처럼 아주 깊은 산이 있는데 거기 숨어 살던 어른이 하나 있었어요. 동학전쟁에 참여했던 어른이래요. 아, 키가 크고 그랬는데, 그 어른이 '빤란구이'를 했다고 그러시거든요. 빤치산은 아니고 '동학전쟁 하던 옛날 빤란구이'라고 했어요. 신돌석 장군하고 이어지는 빤란구이 하다가 저기 숨어 산다고 하는데, (강조 및 중략·인용자) 산에서 나무를 베어서 구유도 만들고 지게도 만들어서 장에 나가 팔고 하셨지요.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독립운동가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몇 사람들은 이름이 남는데 3.1운동 때 만세 부르던 사람들, 동학 이런 데 참가했던 사람들은 전봉준이 실패하고 다 죽은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숨어 살 수밖에 없었어요, 빤치산도 그랬듯이. 그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을.....

### 양반으로 대표되는 지역의 공식역사 비틀기



삼밭골은 열두 골이라는데 어디서 어디까진지 어림잡을 수도 없다. 그만큼 골짜기가 이리저리 갈라져 복잡하기 때문이다./(...) 삼밭골은 삼이 많아서 그런 이름을 불었다지만 그것보다 삼베길처럼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어서 그렇게 불렀을지도 모른다. 같은 안동땅이면서도 남쪽 끝 가장 자리에 불은 녹두자갈밭과 황토흙의 비탈길이 폐기폐기 얹기지로 부동켜안듯이 불어 있다. 산이 그다지 가파르지 않으면서도 만만한 평지도 없다. 사구지미에서 시작되는 설개천은 겨우겨우 다락는을 적서 주어 그나마 명일 때나 차례상과 조상 제사상에 쌀밥 한 그릇은 떠놓을 수 있을 정도다./...) 만약 옥황상제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신다면 인간 세상이 왜 저리도 고르지 못한가고 내내 탄식만 하실 것이다. 더욱 이 조선땅 어디나 반반한 곳이면 양반님네들이 자리를 움켜쥐고 평평거리고 불쌍한 여름지기네는 구석자리로 밀려나 헐벗고 굶주려야 하는지 마음 아프실 게다. 그 착한 여름지기들은 제 땅 한 고랑 못 가지고 따비밭 한 평기도 양반님들께 도조를 내고 얻어 부쳤다./ 삼밭골 사람들은 이래서 더 고달팠다./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가고 물으면 조선 백성들은 거지반 '악으로 산다'고 대답할 것이다. 왜 악으로 사는지 그들이 결코 악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빼와 가죽까지 몽땅 바쳐 양반님들을 위해 희생되었다. 이것이 조선 백성들의 삶이었다. 그 눈물과 한이 얼마나 사무쳤기에 악으로 산다고 했을까.(1- 5~8쪽)

## 한국 근현대사와 지역의 기입

### 근현대사적 사건과 시공간

■ <한티재 하늘>: 서사의 시공간 구체적으로 특정

- 공간: 안동 지역 토박이 말 지명 / 공간의 구체성 확보

- '삼밭골은 열두 골': 골짜기 자갈밭 / '양반님네' / '착한 여름지기'

=> 안동 여러 지역을 거쳐 청송과 영주, 순흥, 영덕과 울진 등 경북 북부지역으로 확장

- 한티재: 동학난리, 을미국상 등 한국 근대사의 특정 사건에 연루된 장소

- 시간: 역사적 사건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기를 연도 등과 병기하는 방식

- "그해 을미년(1895년)"

- 을미년·정미년·을사년·기미년 등 우리 근대사의 중요시기와 소설의 주요사건 연계

- "특정한 지역의 문화적 맥락에서 개인과 집단이 경험하는 일상생활과 행위"- 민중사, 구술사

: 민중의 역사로 재구성하는 데 유효

- <한티재 하늘>: 한국 근대사를 지역사의 맥락에서 재구성한 것

### '한티재'를 매개로 재현되는 사건들



(1) 한티재 너머로 난리가 밀려온 건 그날 밤이었다. 지난해 동학난리를 거쳐 올 팔월에 을미국상을 당하고부터 삼남 지방은 여기저기서 빤란구이(반란군·의병대)들이 갑자기 벌떼같이 일어났다. 선달에 들면서 한티재 너머에도 한 동네에 두셋씩은 젊은이들이 집을 떠나고 있었다.(1-13쪽)

(2) 한티재 이편저편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탑마을 장씨네와 못골 김씨네도 숨어서 믿어온 동학 때문에 가산을 몽땅 빼앗기고 타지방으로 떠났다고 했다. 청송, 진보, 영양, 춘양, 봉화, 순흥, 문경 쪽으로 반란군과 수비대들의 싸움이 줄다리기처럼 밀고 밀리며 끝날 줄을 몰랐다.(1-20쪽)

### '을미년 설달 스무날'의 '난리'와 경북북부지역

- 을미사변(을미국상, 1895월 8월 20일-음력)으로 촉발된 의병 항쟁

- 성리학적 세계관의 유림과 양반 사족이 웅거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 => 을미의병 활약

\* 인동의 권세연 부대: 안동부 점령(1896.1.20.), 친일관료 처단, 관찰사의 반격으로 해산

- <한티재 하늘>: 을미의병의 중심에 섰던 유생과 양반의 서사를 덧붙이는 대신에,

'빤란구이(반란군·의병대)'라는 존재를 반복적으로 제시

- 이중적, 중층적 의미: 갑오 동학농민군 일부 을미의병에 참여

# 지역 민중의 대항기억과 서사

## ‘빤란구이’와 의병, 만세꾼과 소작쟁의의 역사

### ■ ‘빤란구이’의 변천 혹은 역사

- 순홍 가래실 소백산자락에 살던 견재 : 빤란구이를 도왔다라는 이유로 처벌, 죽음
- 남편과 삶터를 잃은 정원이 자녀들과 한티재 너머 친정으로 이주하는 서사
- 정원네가 가래실을 떠나는 “계묘년(1903년)”의 시점에서 서술
- ‘빤란구이’는 ‘반란군’, ‘의병’, ‘활빈당’, ‘화적폐’ 등으로 명칭 변화

\* 예천, 안동 - 활빈당, 영학당 · 동학당 · 서학당 · 초적 · 토비 · 화적 · 의적 등

### ■ ‘빤란구이’를 돋는 사람들

- “당신들은 나라와 백성들을 구할라고 목숨까지 마쳐 싸우고 있잖니껴”
-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빤란구이를 도우며 함께 반란에 가담하고 있다”
- 지배계급에게는 ‘반란군’, ‘화적폐’로 인식 / 일부 사람들은 동조하며 존경할만한 ‘의병’으로 대함.

### ■ 양반 계급과의 대비를 통해 ‘빤란구이’의 위상 설명

- “봉기에 앞장섰던 양반 선비들은 전작에 물러나서 살고 있다”
- “양반 유생들의 봉기에 힘을 얻어 집과 처자식과 부모를 버리고 따라나선 용감한 백성들”
- “역적이 되어 앞뒤로 쫓기는 화적폐 신세”
- 용감한 백성들의 몰락을 안타까워함

=> 양반의 수탈 등 조선사회 구조적 불평등 문제

### ■ ‘빤란구이’ 이후, 만세꾼과 소작쟁의의 서사

- ‘빤란구이’의 역사 : 한티재를 매개로 한 이 지역 민중의 서사
- 많은 이들이 죽거나 삶터를 떠나 떠돌이 생활
- ‘빤란구이’ 이후 남겨진 이들의 서사
  - : 3.1 만세꾼으로 고초를 겪음, 1920~30년대 소작쟁의(풍산소작희/도산서원철폐운동)
  - => 미완의 서사, 구체적 제시 X
- 일제강점기 조선 상황 악화, 식민체제로 인한 구조적 모순과 불평등 심화
  - => 만주와 간도, 일본으로 떠나는/쫓겨가는 가난한 이들의 모습 제현

## ‘할매’와 ‘아지매’들이 지켜온 삶터

### ■ ‘빤란구이’의 서사 / 남겨진 가족들의 서사

삼천리강산의 남자들은 그들대로 괴로운 시대를 사느라 괴로웠고, 그런 남자들 때문에 여인들은 또 숨어서 이렇게 고통을 견뎌야했다. (중략-인용자) 일은 남정네들이 저질렀는데 남아 있던 아낙네들이 뒷일을 모두 떠맡아야 했다. (1권, 178-179쪽)

- 남정네들이 떠난 삶터에 남겨진 ‘아낙네들’의 서사
- 3대에 걸쳐 가장이 되는 여성들의 서사 : 모계 중심의 서사
- 수동액의 인식
- 여성들의 대모(大母, Matriarch) 역할 / 정원과 복남의 가족, 채수과 종대를 돌봄

사람이 할 도리란 대체 무엇인가? 지체 높은 양반님들은 법을 들먹거리고, 삽강오륜을 내세우고, 공자님 맹자님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그것들이 사람의 도리를 온다지도 다 했던가? 그것들이 가르치는 대로 고분고분 따르는 게 사람의 도리일까? 정말 그것들이 사람을 살렸던가? (1권, 181쪽)

- 성리학: 인도(人道)를 배우고 깨쳐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제세안민을 실현하는 학문
  - => 지배계급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백성들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

봉건적 신분제, 구조적 불평등 초래 => 현실변혁의 힘을 상실

### ■ 소설 후반부: 여성 서사 부각 - 부계 중심의 유교질서를 뒤트는 방식

영분이는 신랑 서역이를 말짱 잊고 살기로 했다. 영분이 한테는 서역이 말고도 시 어매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 짐이 있고 엇가리폐기지만 밭도 있고 논도 있다. 그리고 이웃 아낙들이 있고 산이 있고 하늘이 있고 강이 있고 바람도 있다. 이렇게 많고도 많은데 왜 여태껏 서역이 그 매정한 남정네한테 목매달고 있었을까? 밤이면 뜬눈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눈물 흘리고, 왜 목이 쓰리도록 그리워했을까? (...) 영분이네 앞마당은 여름밤 아낙들의 세상이다. 삼베적삼 소매자락을 팔꿈치까지 걷어올리고 장다리를 훌렁훌렁 들어내 놓아도 흥이 안 되는 별난 곳이다. 삼삼기에는 암전하게 갑출 수도 없다. 훨훨 타오르는 광술불에 아낙들의 허여밀건 다리가 어둠 속에 봉실봉실 떠 있다. 일을 하는 건지 놀이를 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같다. 일이 놀이가 되고 놀이가 일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떠들며 삼아놓은 삼실이 아침이면 돌방광주리에 수북이 담겨 있다. 아낙들의 웃음이, 아낙들의 눈물이, 아낙들의 삶이 이어져 실이 된 것이다.

## 숨어서 믿는 동학교도들의 서사

### ■ 숨어서 동학 믿는 사람들 / 동학의 경전과 교리

- 소설 전반부 : 숨어 사는 동학교도가 빤란구이가 되거나 처형당하고, 혹은 빤란구이를 돋다가 죽은 이들의 이야기와 함께, 남겨진 그 가족들의 서사가 펼쳐짐.

- 소설 후반부 : 또 다른 동학교도가 경전과 주문을 통해 ‘스스로 하늘이 되어 가는 과정’을 재현하는 한편, 양반사회 혹은 봉건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극복해감.

=> <한티재 하늘>은 유교 중심 봉건 사회의 문제들을 동학의 어떤 지점을 통해 극복해 나갈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 은애의 주문

은애는 어쨌든 수운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밤낮으로 틈만 나면 주문을 외웠다. / “위천주고아정영세몰망만사지.” /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 / 틀판이 가뭄에 타들어 갈 때, 은애는 집안에서 혼자서 ‘위천주시천주’를 외우며 가슴을 태웠다. / 은애는 정지일을 한 가지씩 손수 늘려 갔다. 춘분이 뜬의 일을 접점 줄여주고 힘든 일 끽은일도 해 나갔다. (...) / “인지부터 작은마님 하지말고 형님이라 불리.” / “예애?” / 춘분이는 입이 딱 불어진다. / “이 세상은 상전도 머슴도 없고 모두 형제간이네.” (...)

은애는 망설이지 않았다. 좁은 집안 울타리 안이지만 은애는 그렇게 스스로 하늘이 되어갔다. 곳간에서 쌀을 퍼내어 실경이네 잡곡과 바꿔다 보리밥 조밥을 먹었다.

### ■ 은애의 서사: 삶터에 남겨진 ‘아낙네들’의 서사

- 소설 후반부를 주도하는 여성 서사: 남편을 여의고 홀로 자식을 키우며 집안의 가장으로서 당당하게 자리매김=> 여성해방을 선취한 동학사상과도 이어짐

### ■ 은애를 통해 구현되는 동학의 핵심: 시천주(侍天主)

=> 차별받고 수탈당하는 사회적 약자를 ‘하늘님’으로 모심

=> ‘사인여천(事人如千)’, ‘유무상자(有無相資)’로 확장

=> 유교적 세계를 해체, 사회적 문제 해결 대안 가능성 제시

## 새로운 민중사 혹은 대안적 역사쓰기

### ■ 경북 북부지역 민중들의 대항기억과 지역사의 복원

<한티재 하늘>: 역사 뒤편에 묻힌 이름 없는 민중들, 나아가 그러한 역사적 사건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터에 남은 자들의 서사

-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 북부지역 사람들의 기억과 입말로 재구성

- 유교적 질서와 체계가 지닌 모순과 억압을 서사화

=> 경북 북부지역 / 빤란구이, 여성(할매와 아지매), 동학의 서사

=> ‘양반의 고장’으로 표상되는 ‘지역의 정체성’ 전복,

대항기억으로서의 지역사 복원/ 한국 근현대사를 새롭게 읽고 쓰기